
 금융위원회	보도반박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11.7.(일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	

제 목 : 고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여부 및 구체적 규제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☐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, 서울신문 등은 “대치동 전세, 직장인은 꿈도 못꾸나”(11.7일자), “전세값도 9억 키맞추기... 고가전세 대출규제 갑론을박”(11.6일자) 등 제하의 기사에서,
- 내년부터는 고가전세에 대해 보증이 제한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이처럼 일부 언론에서 9억원 이상 전세에 대한 규제 시행을 보도하고 있으나,
- 현재 고액 전세주택에 대한 규제여부와 적용대상 및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	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
-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